

남녀 유아의 어머니-유아 친밀감과 또래수용 간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영향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Child Intimacy and Peer Acceptance

신유림(Yoolim Shi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child intimacy and peer acceptance based on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According to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negative emotionality and difficult temperament is potential differential susceptibility factors. The participants were 3-year-old children recruited from preschools and daycare centers. Teachers completed measurement of negative emotionality. Peer acceptance was measured by peer nomination. Mother-child intimacy was reported by mothers. The results presented that negative emotionality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mother-child intimacy and peer acceptance only for boys. For boys with high level of negative emotionality, mother-child intimacy significantly predicted peer acceptance. However, for boys with low level of negative emotionality, mother-child intimacy did not associate with peer acceptance. For girls, negative emotionality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child intimacy and peer acceptance. These findings support differential susceptibility hypothesis that vulnerable children are susceptible to positive parenting effects.

▲주제어(Key Words) : 부모-유아 친밀감(mother-child intimacy, 또래수용(peer acceptance), 부정적 정서성(negative emotionality)

I. 서론

유아들은 또래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또래관계의 유능감을 발달시키게 된다. 유아의 또래관계 유능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연구자들은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부모의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육을 경험한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수용되며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게 된다(Y. Kwon & K. Park, 2003; J. Park & E. Rhee, 2001).

유아의 또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유아 개인 변인으로는 기질을 들 수 있다. 기질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특성으로 부모양육과 상호작용하여 또래관계의 유능감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방법이나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 본 논문은 201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Corresponding Author : Yoolim Shi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487, E-mail: yoolim@catholic.ac.kr

않으며 기질의 중재 역할에 의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A. Sanson, S. Hemphill, & D. Smart, 2004). 2세 때 접근성의 수준이 낮고 분노 수준이 높은 유아의 경우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를 수용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에 4세가 되면 외현적 문제행동이 나타났다(A. Morris et al., 2002). 또한 수줍음의 정도가 높은 유아의 경우에 어머니가 부정적 정서성이 높으며 과잉보호적인 양육을 하는 경우에만 유아의 내면적인 문제행동이 나타났다(R. Coplan, K. Arbeau, & M. Armer, 2008).

기질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특성 중 부정적 정서성은 까다로운 기질의 구성요인이며 특히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취약성 또는 병적소질(diathesis)로 부적응을 야기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은 아동은 정서조절이 잘 되지 않아 쉽게 달래지지 않으며 슬픔, 분노, 공포 및 불안과 같은 정서 수준과 반응성의 수준이 높다(M. Rothbart & J. Bates, 2006).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2세에 접근성 수준이 낮고 분노 수준이 높은 유아가 부모로부터 이러한 기질적 특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양육을 받게 되면 4세에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 Morris et al., 2002). 또한 접근성이 낮고 수줍음의 정도가 높은 유아의 경우에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고 과잉 보호적인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면 유아의 내면적 문제행동이 나타났다(R. Coplan, K. Arbeau, & M. Armer, 2008).

이중 위험 취약성(Dual risk vulnerability)모델에 의하면 기질특성 중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취약성이나 병소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아동이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M. Boivin et al., 2005). L. Lengua and E. Kovacs(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상호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가 이후 아동의 부적응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최근에 아동발달 연구자들은 아동의 기질과 부모 양육태도 간 상호작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차별적 민감성 모델(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을 제안하였다. J. Belsky(1997; 2013)가 제안한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의하면, 아동들은 신경계의 민감성 정도에 개인차가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반응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 민감한 신경계를 지닌 아동은 조절능력이 부족하며 이런 아동일수록 부모양육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J. Belsky(2005)는 기질의 부정적 정서성을 유전적으로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는 행동적 지표로 보았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민감한 신경계를 갖고 있으므로, 양육의 부정적 및 긍정적인 경험 모두가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낮은 아동과 비교하여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지원적 양육을 받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발달을 보일 수 있다. G. Kochanska(1993)도 부정적 정서성을 발달의 취약요인이 아닌 주변 환경적 자원에 대한 민감성 또는 가소성의 요인으로 보았다. 유아의 두려움 정서 수준이 높은 경우에 어머니의 강압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 조절 발달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가 높았다(G. Kochanska, 1993).

이와 같이 차별적 민감성 모델은 스트레스 환경이 취약한 특성을 지닌 아동의 부적응의 발생률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이중 위험 취약성 모델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적 환경이 이러한 특성의 강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부정적인 환경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을 촉진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B. Ellis, T. Boyce, J. Belsky, M. Bakermans-Kranenburg, & M. Van Ijzendoorn, 2011).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지지해주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R. Feldman, C. Greenbaum, and N. Yirmiya (1999)의 연구에서는 영아와 어머니 상호작용의 친밀감과 유아의 자기조절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유아에게만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순한 기질의 유아에게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세에서 5세 동안 외현적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추적한 J. Mesman et al.(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의 경우에만 어머니 양육의 민감성이 외현적 문제행동의 감소를 예언해주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 관계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이 아동의 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 Kim & G. Kochanska, 2012). A. Stright, K. Gallagher, and K. Kelley(2008)의 연구를 보면, 부모로부터 수용적이고 지원적 양육을 받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가장 높은 적응점수를 보여주었다.

실험연구를 통해서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입증해주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M. Klein, M. Bakermans-Kranenburg, F. Juffer, and M. IJzendoorn(200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민감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어머니 민감성의 변화가 애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유아들의 경우에 훈련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애착 안정성의 정도가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성이 수준이 높은 남아들이 부모의 통제적 양육을 받게 되면 외현적 문제행동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민감하고 온정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외현적 문제행동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C. van Aken, M. Junger, M. Verhoeven, M. van Aken, & M. Dekovic, 2007).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양육경험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정적 정서성이 발달의 취약성으로만 작용하기 보다는 환경영향에 대한 민감성 또는 가소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S. Kim & G. Kochanska, 2012),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뛰어난 적응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근거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문제행동(J. Mesman et al., 2009), 애착 안정성(M. Klein et al., 2006), 도덕성 발달(G. Kochanska, 1997) 및 학교적응(A. Stright & K. Gallagher, 2012)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모델을 검증하였으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실시된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부정적 정서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Y. Kwon & K. Park, 2003; Y. Kwon & H. Lee, 2005; M. Sung, 2006),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근거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기질과 발달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할 때 아동의 성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안하고 있다(H. Henderson, N. Fox, K. Rubin, 2001). 부정적 정서성 및 수줍음과 같은 기질 특성은 아동이 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르며(A. Simpson & J. Stevenson-Hinde, 1985), 발달에 대한 기질과 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 영향도 아동의 성에 따를 수 있다(J. Pitzer, R. Jenoon-Steinmetz, G. Esser, M. Schmidt, & M. Laucht, 2011). J. Pitzer et al.(2011)의 연구에 의하면, 겁이 많고 행동억제성향을 보이는 남아들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공감적인 양육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으나 여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없었다. J. Grady, K. Karraker, and A. Metzger(2012)의 아동의 수줍음 발달궤적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보면, 어

머니로부터 민감한 양육을 받은 경우 남아의 수줍음은 감소되었으나 여아의 민감성은 증가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양육과 아동의 기질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성차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해준다.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의사소통기술 및 충동조절능력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W. Hartup, 1983).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기초해볼 때, 아동의 기질 특성 중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에 따라 부모양육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A. Sanso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부모양육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에 따라 다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을 부모-유아의 친밀감으로 측정하고 또래관계 유능감을 또래수용으로 측정하여 부모-유아의 친밀감과 또래수용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 영향을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므로써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유아의 친밀감은 남녀유아의 또래수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유아의 친밀감과 남녀의 또래수용 간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5개 유치원과 14개 어린이집을 포함한 총 19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기관의 원장 및 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기관에 재원중인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만 3세는 놀이발달 과정에서 사회적 놀이가 시작되면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시점이므로(R. Coplan & K. Arbeau, 2009), 연구대상의 연령을 만 3세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313명으로 연구 대상 유아들을 성별로 보면 남아는 163명이었고 여아는 150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유아 친밀감

R. Pianta(1994)가 개발한 유아-교사 관계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유아 간 친밀감을 측정하였다. STRS는 국내의 선행연구(J. Lee, 2004; J. Kim & Y. Shin, 2011)에서도 어머니-유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본 검사 실시 전 아동학 전공 박사 2명에 의해 도구의 안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STRS는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도구이며, 친밀감은 자녀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갖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STRS는 부모가 보고하며 하위척도 중 친밀감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을 사용하여 어머니-유아 간의 친밀감을 측정하였다(예: 나는 아이와 애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나누고 있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유아 간 관계의 친밀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는 .89이었다.

2) 또래 수용

유아들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는 정도는 D. Schwartz, J. Farver, L. Chang, and Y. Lee-Shin(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지명법(peer nomination)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또래지명법은 또래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유아들의 시각에서 자료가 수집된다는 것이 장점이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유아들도 신뢰로운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A. Cillessen, 2009).

유아들을 한명씩 빈 교실로 데리고 온 후 학급의 전체 사진을 보여주고 유아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다음 유아에게 같이 노는 것이 재미있고 좋아하는 유아들의 사진을 차례대로 3장 선택하도록 한 다음 각 학급의 또래들로부터 받은 긍정적 지명 빈도를 계산하였다. 긍정지명 빈도를 z점수로 변환하여 또래 수용 점수를 계산하였다.

3) 부정적 정서성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M. Rothbart(1996)의 아동 행동 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에서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로 측정되었다. 부정적 정서성은 분노, 두려움, 슬픔 및 좌절과 같은 정서의 표현 정도를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성 척도는 부모가 보고하며 11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4점 척도이다(예: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금방 화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를 계산한 결과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로 어머니 5명과 유아교사 5명에게 측정도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합성과 이해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의 어머니들에게 어머니-유아 친밀감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배부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또한 아동학을 전공한 훈련된 연구보조원들이 각 기관을 방문하여 빈 교실에서 유아 개인별로 또래 지명법을 실시하였다. 학급 담임교사에게 부정적 정서성 설문지를 배부하고 완성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또한 총 330개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317부였고 최종 313부가 분석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변인들 사이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위계적 회귀 분석을 적용하여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남녀 유아들의 어머니-유아 친밀감, 또래수용과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유아 친밀감의 평균 점수는 4점 척도에서 남아는 3.18, 여아는 3.24로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z 점수로 계산된 또래수용점수의 표준편차 값이 높게 나타나 또래로부터 긍정지명의 빈도에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점수는 4점 척도에서 남아는 2.02, 여아는 1.83으로 나타나 남아와 비교하여 여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남녀 유아별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여아의 결과를 보면, 어머니-유아 친밀감, 또래수용 및 부정적 정서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아의 결과를 보면 또래수용과 부정적 정서성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

Table 1. Mean and SD of Mother-Child Intimacy, Peer Acceptance, and Negative Emotionality

Variables	Boys		Girls	
	M	SD	M	SD
Mother-Child Intimacy	3.18	.320	3.241	.364
Peer Acceptance(z score)	.0087	.936	-.0003	.966
Negative Emotionality	2.026	.630	1.837	.641

Table 2. Correlations among Mother-Child Intimacy, Peer Acceptance, and Negative Emotionality

Variable	1	2	3
1. Mother-Child Intimacy		.021	.060
2. Peer Acceptance	.093		.021
3. Negative Emotionality	.060	-.184*	

* $p < .05$ (boys= below diagonal line / girls= above diagonal line)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Child Intimacy and Peer Acceptance for Children

Step	Variables	β	R^2	ΔR^2	F
Step 1	Mother-Child Intimacy	.029	.013		1.807
	Negative Emotionality	-.114			
Step 2	Mother-Child Intimacy	.008	.031	.018	2.941*
	Negative Emotionality	-.130*			
	Mother-Child Intimacy x Negative Emotionality	6.53*			

* $p < .05$

타났으며($r = -.184, p < .05$),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수용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유아 친밀감과 유아의 또래 수용 간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실시 전에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VIF 지수는 1.02-4.01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15-2.03으로 잔차 간 자기 상관성이 없었다.

어머니-유아 친밀감과 또래 수용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 독립변수인 어머니-유아 친밀감과 부정적 정서성을 투입하고, 2단계에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다. 또래 수용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

에 제시되어 있다. 2단계 투입된 부정적 정서성 및 상호작용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의미한 상호작용결과가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과 같다. <Table 4>에 의하면 1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유아 친밀감과 부정적 정서성은 유의미한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에서는 투입된 상호작용변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beta = 1.008, p < .05$) 남아의 또래수용을 추가로 3.0% 설명하였다. 즉 중재 변인인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에 따라 어머니-유아 친밀감이 남아의 또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R. Baron and D.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중재변인인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에서 +1 SD와 -1 SD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로 어머니-유아 친밀감이 남아의 또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에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Child Intimacy and Peer Acceptance for Boys

Step	Variables	β	R^2	ΔR^2	F
Step 1	Mother-Child Intimacy	.090	.030		2.197
	Negative Emotionality	-.166			
Step 2	Mother-Child Intimacy	.006	.076	.030	3.837*
	Negative Emotionality	-.137*			
	Mother-Child Intimacy x Negative Emotionality	1.008*			

* $p < .05$

Table 5. Association between Mother-Child Intimacy and Peer Acceptance for High and Low Negative Emotion Boy Groups

Group	Independent Variable	β	R^2	F
High	Mother-Child Intimacy	2.76*	.215	5.48*
Low	Mother-Child Intimacy	.114	.022	2.22

* $p < .05$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Child Intimacy and Peer Acceptance for Girls

Step	Variables	β	R^2	ΔR^2	F
Step 1	Mother-Child Intimacy	.029	.006		1.807
	Negative Emotionality	-.114			
Step 2	Mother-Child Intimacy	.006	.014	.008	1.889
	Negative Emotionality	-.137*			
	Mother-Child Intimacy x Negative Emotionality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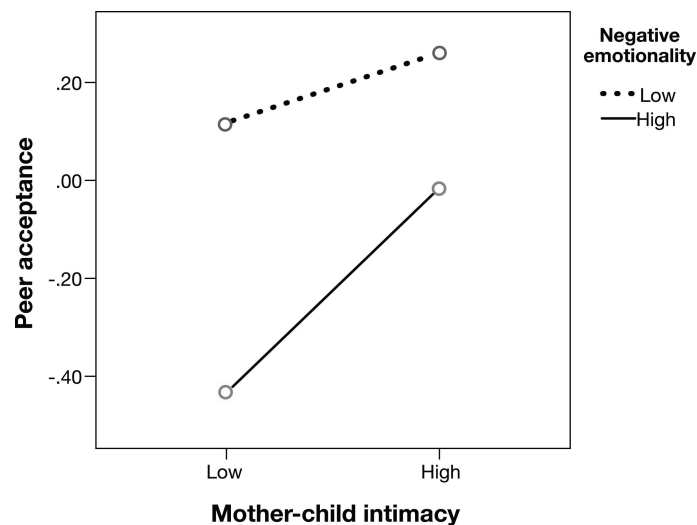
* $p < .05$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child Intimacy and Peer Acceptance for Boys

제시된 바와 같이 상집단의 경우, 어머니-유아 친밀감은 남아의 또래수용을 유의미하게 예언해주었으며($\beta=2.76$, $p<.05$), 하집단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예언력이 없었다($\beta=.114$, ns). 즉 부정적 정서성이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머니-유아 친밀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남아의 또래 수용 점수가 높아졌다. 반면에 부정적 정서성이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어머니-유아 친밀감이 남아의 또래 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 영향에 대한 결과는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여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으며, 2단계 투입된 부정적 정서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유아 친밀감과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기초하여 남녀 아동별로 어머니-유아 친밀감과 유아의 또래 수용 간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인은 영향력이 없었으나 2단계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독립변인의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는 없으나 조절변인의 조건에 따라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J. Jaccard & R. Turrisi, 2003; S & M Research Group, 2008), 본 연구는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를 논의하였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남아에게만 조절영향이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남아의 경우에 어머니와의 친밀감은 또래집단의 수용에 영향을 주었다. G. Kochanska(1993)에 의하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불안에 대한 역치 수준이 낮은 특성이 있으므로 부모의 훈육에 의해 쉽게 각성이 되고 반응적일 수 있다. J. Belsky(1997)는 부정적 정서성을 환경에 대해 민감한 신경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 있으므로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아동은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의 경험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발달적으로 지원적 환경에서는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차별적 민감성의 가설을 지지해준다.

이중 위험 취약성(Dual risk vulnerability) 모델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항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낮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성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성은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며 가소성(plasticity)으로 작용하므로 부모와의 친밀한 양육조건에서는 유아의 또래관계 유능감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바람직한 특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머니-유아의 친밀감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되므로(S. Kim & G. Kochanska, 2012),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은 유아는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을 경험하면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는 또래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성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더욱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갈등상황에서 분노 정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이기보다는 자기 주장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유아 친밀감 도구의 문항을 보면, 자녀의 정서에 공감해주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녀와 친밀성이 높은 어머니들은 아동의 정서를 억압하기보다 공감,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아동들이 원만한 또래관계의 기초가 되는 정서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낮은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유아 간 친밀감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측정방법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친밀감 도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자녀와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측정하여 양육의 전반적인 영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주는 영향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 Kim and G. Kochanska (2012)는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낮은 유아들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효율적인 자기조절능력을 갖추고 있어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정도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와 비교하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성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남아의 경우에만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기질과 부모 양육의 상호작용 영향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며 특히 남아의 경우 부모 양육의 영향력 정도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K. Rubin, P. Hasting, X. Chen, S. Stewart, and K. McMichal(1998)은 남아의 경우에만 또래관계에 대한 부

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지배적인 양육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Y. Kwon and K. Park (2003)의 연구에서도 또래관계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남아의 경우에서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영향을 분석한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친밀감이라는 긍정적인 양육의 영향을 제시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의 경험은 아동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또래와 원만한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아와 비교하여 남아는 부정적 정서의 정도가 높고 정서조절능력이 미숙하므로(J. Eagle & L. Nancy, 2010), 부모와 친밀한 관계의 경험은 남아가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여(W. Hartup, 1983), 또래들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에 영향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부정적 정서의 정도가 높은 유아에게 제공되는 양육환경이 특히 중요하며, 발달 초기에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유아들 초기에 선별하고 바람직한 양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해준다. 실제로 C. Blair(2002)의 실험연구에 의하면, 부모를 대상으로 영아건강과 발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유아의 문제행동과 IQ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중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은 유아들의 경우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부정적 정서성 상하 집단 간에 문제행동의 차이가 없었다. S. Scott and T. O'Connor(2012)의 연구에서도 부모 개입프로그램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서조절에 문제가 있는 유아들의 경우에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변화에 대하여 아동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최근에는 가정에서의 양육 경험뿐만 아니라 보육환경이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M. Pluess and J. Belsky(2010)는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이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들에게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즉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을 받게 되면 문제행동의 정도가 낮고, 교사와 유아 간 갈등 수준이 낮았으며, 읽기능력과 같은 인지능력이 우수하였으나 이러한 보육의 긍정적인 영향이 까다로운 기질의 수준이 낮은 유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기초하여 부모와 양육 환경뿐만 아니라 보육 환경의 영향력을 검증해보는 주제로 연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는 만 3세의 동일시점에 수집되어 연구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종단적 연구의 1차 자료로 분석된 결과이며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인 만 3세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한 기질 및 부모양육의 영향력을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유아 간의 친밀감을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는 측정방법이 추후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사회성 발달에서 또래관계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 정서성의 중재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문제행동, 자기조절, 친구 관계와 같은 사회성 발달이 여러 영역에서 차별적 민감성의 모델을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가 추후에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kker, A. L., Dekovic, M., Prinzie, P., & Asscher, J. J. (2010). Toddlers' temperament profiles: Stability and relations to negative and positive parent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3), 485-49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lsky, J. (1997). Variation in susceptibility to rearing influence: An evolutionary argument. *Psychological Inquiry*, 8(3) 182-186.
- Belsky, J. (2013).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7(2), 15-31.
- Blair, C. (2002). Early intervention for low birth weight preterm infants: The role on negative emotionality in the specification of effects. *Development and Psy-*

- chopathology*, 14(2), 311-332.
- Boivin, M., Pérusse, D., Dionne, G., Saisset, V., Zocco-lillo, M., & Tarabulsky, G. (2005). The genetic-environmental etiology of parents' perceptions and self-assessed behaviors toward their 5-month-old infants in a large twin and singleton sam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 612-630.
- Cillessen, A. H. N. (2009). Sociometric methods. In K. H. Rubin & W. M. Bukowski, B. Lauren (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pp82- 99).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plan, R. J., & Arbeau, K. A. (2009). Peer interaction and play in early childhood. In K. H. Rubin & W. M. Bukowski, B. Lauren (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pp 143-161).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plan, R. J., Arbeau, K. A., & Armer, M. (2008). Don't fret, be supportive! maternal characteristics linking child shyness to psycho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3), 359-371.
- Eagle, J. M., & Nancy, L. M. (2010). Parental reactions to toddlers' negative emotions and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s cor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at the age to three. *Social Development*, 20(2), 251-262.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4(3), 241-273.
- Ellis, B. J., Boyce, T., Belsky, J.,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11).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 An evolutionary-neurodevelopmental theor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 7-28
- Feldman, R., Greenbaum, C., & Yirmiya, N. (1999). Mother-infant affect synchrony as an antecedent of the emergence of self-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223-231.
- Grady, J. S., Karraker, K., & Metzger, A. (2012). Shyness trajectories in slow-to-warm-up infants: Relations with child sex and maternal parent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91-101.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4, pp 103-196). New York: Wiley.
- Henderson, H. A., Fox, N. A., & Rubin, K. H. (2001).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The moderating roles of frontal EEG asymmetry and gen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68-74.
- Jaccard, J., & Turrissi, R. (2003).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2nd ed.). Sage University Papers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no. 07-072. Thousand Oaks, CA: Sage.
- Klein Velderman, M., Bakermans-Kranenburg, M. J., Juffer, F., & IJzendoorn, M. H. (2006). Effects of attachment-based interventions on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attachment: Differential susceptibility of highly reactive infa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2), 266-274.
- Kim, S., & Kochanska, G. (2012). Child temperament moderates effects of parent-child mutuality on self-regulation: A relationship-based path for emotionally negative infants. *Child Development*, 83(4), 1275-1289.
- Kim, J., & Shin, Y. (2011). Moderating effects of mother- and teacher-child intim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s social behaviors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Life-span Studies*, 1(2), 17-29.
- Kochanska, G. (1993). Toward a synthesis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child temperament in early development of conscience. *Child Development*, 64(2), 325-347.
- Kochanska, G. (1997). Multiple pathways to conscience for children of different temperament :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228-240.
- Kwon, Y. H., & Park, K. (2003). Effects of emotionality,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maternal behavior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3), 27-44.
- Kwon, Y. H., & Lee, H. H. (2005).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emotional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201-216.
- Lee, J. (2004). Predicting mother-child relationship,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 in kindergarten to school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1(4), 333-357.

- Lengua, L. J., & Kovacs, E. A. (2005).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parenting, and the prediction of adjustment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1), 21-38.
- Mesman, J., Stoel, R., Bakermans-Kranenburg, M. J., van IJsendoora, M., Juffer, F., Koot, H. M., & Alink, R. R. (2009). Predicting growth curves of early childhood externalizing problem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of children with difficult tempera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5), 625-636.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Sessa, F. M., Avenevoli, S., & Essex, M. (2002). Temperamental vulnerability and negative parenting as interacting predic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461-471.
- Park, J., & Rhee, E. (2001). Children's peer competence: Relationships to maternal parenting goals, parenting behavi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4), 1-15.
- Pianta, R. C. (1994). Patterns of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1), 15-31.
- Pitzer, J., Jenoon-Steinmetz, R., Esser, G., Schmidt, M. H., & Laucht, M. (2011).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the role of early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problems. *Comprehensive Psychiatry, 52*(6), 650-658.
- Pluess, M., & Belsky, J. (2010).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parenting and quality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46*(2), 379-390.
- Rothbart, M. K. (1996).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Eds.), *Temperament in childhood*(pp. 187-247). New York : Wiley.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Ed.).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 development*(6th ed.), 3, (pp. 99-166). NY: Wiley.
- Rubin, K. H., Hastings, P. S. L., Chen, X., Stewart, S., & McNichol, K. (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 of aggressive,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 *Child Development, 69*(6), 1614-1629.
- S & M Research Group. (2008). AMOS: Beginning & Intermediate level. Workshop Series 4.
-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 143-170
- Schwartz, D., Farver, J., Chang, L., & Lee-Shin, Y. (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2), 113-125.
- Scott, S., & O'Connor, T. G. (2012). An experimental test of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parenting among emotionally-dysregulated children 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or opposition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3*(11), 1184-1193.
- Simpson, A. E., & Stevenson-Hinde, J. (1985).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of three-four-old boys and girls and child-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1), 43-53.
- Stright, A. D., Gallagher, K. C., & Kelley, K. (2008). Infant temperament moderates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79*(1), 186-200.
- Sung, M. (2006). Social skills and proble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3), 285-300.
- van Aken, C., Junger, M., Verhoeven, M., van Aken, M. A. G., & Dekovic, M. (2007). The interactive effects of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on toddlers' externalizing behavio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5), 553-572.

접수일 : 2014년 03월 11일

심사일 : 2014년 04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6월 16일